

민주 광주시장 경선 ‘결선투표’ 하나

민형배 후보 도입 주장

민주 공천심사체제 전환

경선 4월~5월초 순차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및 국회 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최근 공천심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단수·전략공천, 1·2차 경선 등 모든 가능성이 열린 상태에서 공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공천 방식에 따른 후보간 유불리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전 광안구청장이 최근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자”고 선언하면서 중앙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이번 광주시장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선거 준비를 재개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에는 중앙당 공식 선거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를 위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관위 인적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16일 최고위에서 공관위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 회의가 길어지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공관위는 이달 초 임명된 정성호 위원장을 비롯해 여성과 외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관위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공관위는 앞으로 후보 접수 및 면접 등의 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선거 지역별로 단수공천 여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필수 청년전진대회에서 청년 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및 경선 방식·일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 공천은 ‘경선이 원칙’으로, 최문순 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서는 강원도를 제외한 광역단체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전체 관리당원 대상 ARS 투표 및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결과로 후보자를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은 4월부터 5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1·2차로 나눠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서울시장의 경우 후보가 몰리면서 사실상 결선투표 형식의 2차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미투 파문으로 경선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된 상황이라 경선이 1·2차로 나눠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광역단체장 선거 중 김경수 의원 차출설이 나오는 경남은 전략공천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또 민주당 열세지역인 대구·경북(TK)에 대해서도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당헌·당규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경우 20%(3곳)까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 ‘딛발’인 광주의 경우는 후

보들이 몰려 있어 단계별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7명의 후보들이 몰리면서 결선투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결선투표제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통합을 최대화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같은 당 후보 경쟁자들은 강기정·양향자·이병훈·이용섭·최영호 후보와 양방향 시장에 대해 결선투표제 요청에 함께 해주시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절반을 넘는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한 번 더 투표에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경선 순서와 관련해 민주당은 후보 간 경쟁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경선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해 본격적인 공천심사 체제로 당이 운영될 것이며 공천률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추경안’ 공방

“일자리 초당적 협력을” vs “지방선거 겨냥한 포퓰리즘”

여야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4조원을 편성하기로 하자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정치권이 추경에 대응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수 야권에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청년을 기만하는 일자리쇼” 등의 비판을 내놓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재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18일 “대책이라는 게 야마추어적이고 곳간 비우기식”이라며 “미래를 위한 사다리를 건어자는 정부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밀 빠진 독에 열세를 부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문제는 구멍 난 항아리 자체에 있지 부는 열세의 양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 추경은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라며 “본예산이 편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추경안을 내는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조배숙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호남의 고용 쇼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지키기 추경’,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이라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청년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경안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최영호 ‘중·고교생 통학버스비 지원’ 공약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8일 장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교생 통학버스비 지원’을 공약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간 경계를 넘어 장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근처 학교에 다니는 경우보다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고, 불가피하게 학부모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탄소배출 증가로 환경적인 악영향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1만 명의 학생에게 1일 1600원을 135일(방학기간, 휴일 등 제외)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21억6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용섭 “금호타이어 채권단·노조 대화해야”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8일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노조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금호타이어 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금호타이어 경영난을 둘러싼 채권단과 노조의 대립은 가뜰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움츠리게 한다”면서 “노조 또한 총파업을 비롯해 광주전남 노동단체들과의 연대투쟁을 예고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등 양측이 대립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채권단·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비대위를 구성 상생 방안을 하루빨리 이끌어 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오늘 ‘그랜드 비전’ 정책발표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9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그랜드 비전’ 정책발표회를 갖는다.

양 예비후보는 광주의 새천년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담은 정책과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기존 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한 핵심 공약 사업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광주에 새로운 동력을 넣겠다”면서 “정책발표회를 통해 발표되는 정책들은 향후 선거 전략에 포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미래의 가치로 무장한 양향자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지방분권 위해 한마음으로 싸워야”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신정훈 청와대 전 농업비서관은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시대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면서 ‘혁신 도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전 비서관은 이날 나주축협 대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 나주연대 2018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과 교육, 문화의 수도권 집중을 우리 손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분권국가는 요원한 만큼 지방이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박혜자, 광주 맞춤형 ‘도시재생대학’ 제안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8일 도심재생사업 두 번째 실천공약으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교육 활성화 지원방안’ 사업의 성공을 위한 광주 맞춤형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천형 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용하는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박 예비후보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인생 3모작 지원에 필요한 단계별 프로그램’ 등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다”면서 “마을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주민 자율형 프로그램과 인재 양성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갑석 “한반도 평화, 남북이 주도해야”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8일 평창동계패럴림픽 폐막과 관련 “전국민게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정과 감동의 다큐멘터리를 선사했다. 이를 완성한 선수, 임원, 조직위, 자원봉사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이번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최대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단결됐던 남북 대화를 이끌어 낸 것과 남북 및 북미평화회담을 성사시켜 스포츠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남북이 주도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깃드는 또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욱·오광록기자 kroh@

강기정 “오늘 당원명부 유출 허위사실 고소 4명 무고죄 고소”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8일 “당원명부 유출 및 문자발송과 관련, 허위사실을 들어 자신을 고소한 4명을 19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정상적 당무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소를 해 온 것은 이용섭 예비후보 측의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을 몰타기 하기 위한 배후세력의 비열한 조종이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선거명부를 유출, 사전선거운동성 문자를 보냈다’며 지난 6일 자신을 고소한 4명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며 이날 변호사를 통해 광주지방법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문자 발송 당시 민주당 북갑지역위원장 및 광주시장 상무위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수집된 당원명단을 통해 합법적으로 관리했을 뿐 피고소인들의 주장처럼 당원명부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새해인사 문자메시지 수신자는 총 3만73명으로 명단의 세부 수집내역까지 고소장에 적시했으며 발송비용 71만원도 배우자가 계좌를 통해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 “당원명부를 불법 유출했거나 그 명부를 불법 활용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후보가 있다면 누구든지 책임지고 예비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더스트 크리너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YHB)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 주 공 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 062-953-2995
익 산 공 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례동) Tel, 063-835-4771